

# “정부차원 고추 가격안정 대책 시급”

햇 고추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가격 변동 폭이 큰 고추 수급안정을 위해 최저 가격 보장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해남군청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고추가격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고추주산단지 협의회는 고추산업 공동 발전 방안과 고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다. 전국의 주요 고추주산단지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실무회의에서 고추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주고, 대신 면적 조절과 출하종지 등 강화된 수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전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으로 수급안정 체계 구축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칼라병 등에 대한 저항성 강한 품종 개발·보급,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 외국인 고추에 대한 관세를 조절과 수입제한 등을 대정부 건의문에 담았다.

이들은 특히 견고추에 비해 낮은 관세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는 최근 해남군청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고추가격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해남군 제공

##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 해남서 대정부 건의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수입 관세율 조절 등 촉구

를 적용받고 있는 냉동고추 및 혼합조미료, 소스 등이 재가공돼 고춧가루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입제한을 통한 국산

대한 검역강화 등도 논의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개방 확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가뭄·폭염·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처해있다”며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위기의 고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 “천연기념물 진도개공연 보세요”

진도개테마파크서 내일 광복절 특별공연

진도군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특별 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특별 공연은 진도개의 우수성을 직접 알 수 있는 진도개 공연, 경주, 어질리티(장애물 통과) 등이 진행된다.

진도개테마파크 내 사육장과 진돌이썰매장, 홍보관, 방사장, 돌아온 백구토포아리 공원 등에서 진도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운영한다.

진도군은 진도개의 영민함과 우수 고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를 거듭나길 기대한다

고 있다.

올해 진도개 공연은 오는 12월까지 평일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 실시하며, 일요일 등 주말에는 오후 1시에 개최한다.

진도개테마파크에는 평일에는 300여명, 주말에는 600~700여명의 관광객들이 진도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13일 “진도개테마파크가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태 기자



진도개 공연 모습.

# 목포해상케이블카 막바지 준비 한창

## 메인로프 설치 완료·종합시운전 돌입...내달 6일 개통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9월 개통을 앞두고 종합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해상케이블카 전 구간에 걸쳐 메인로프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이날부터 종합시운전에 들어

갔다. 마지막 공정의 메인로프는 지난 5월 설치과정에서 미세한 풀림현상이 발생해 재시공되면서 공기가 연장됐다.

종합시운전은 승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탑승용 캐빈을 달기

전은 물론 승객을 태웠을 때를 감안해 모래 등을 싣고 캐빈의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어 23일 교통안전공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시승식 등을 거쳐 9월 6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공사와 별개로 주차장 2개소와 유달산 소로를 완료했으며, 준공 후 시의회

동의를 얻어 목포해상케이블카주와 운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해상 0.82km, 육상 2.41km 등 총 연장 3.23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

승강장 3개소 모두 승·하차가 가능하고 목포 원도심, 유달산 기암괴석, 다도해, 향구 등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해상을 건너는 최대 높이가 해발 155m에 이르러 국내 어느 케이블카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스릴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 세계 수영 동호인에 완도 매력 알린다

### 광주마스터스수영대회서 ‘완도 홍보의 날’ 운영

완도군이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완도의 해양치유산업과 문화관광 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집중 홍보한다.

이를 위해 마스터스수영대회가 열리는 광주 남부대학교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15~16일에는 ‘완도 홍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마스터스수영대회에는 84개국 5,7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완도 홍보관에서는

‘토요심상콘서트’와 ‘정정완도가을빛어행 축제’ 등 관광상품을 비롯해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과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을 홍보한다.

‘완도 홍보의 날’에는 완도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완도 알리기 SNS이벤트 등을 통해 청정바다수도 완도와 해양치유 산업을 알릴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완도의 관광자원과 해양치유산업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해



완도군은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기간동안 광주 남부대학교에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양치유시티투어 등 완도만이 가질 수 있는 찾고싶은 완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광복절 앞두고 아베 규탄 촛불 문화제

목포문화연대, 오늘부터 이틀간 퍼포먼스 등 진행

광복절을 맞아 목포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교 규제와 도발에 항의하는 시민 문화제가 열린다.

목포문화연대는 14~15일 ‘아베 신조 규탄 목포시민 촛불 문화제와 행동의 날’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규탄 행사는 일제 강점기 수탈의 심장이었던 구 일본영사관(목포근대역사관 1관)과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목포근대역사관 2관)를 중심으로 열린다.

아베 규탄 목포시민 촛불 문화제는 14일 오후 7시에 열리며 아베 정권 규탄 발언과 퍼포먼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15일 오후 4시부터는 ‘경제, 역사 전쟁

도발’ 그냥 둘 수 없다. 행동의 날’이라는 주제로 과거 일본의 수탈 현장부터 조선 일 저항 현장까지 거리 행진, 역사해설을 진행한다.

목포문화연대는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배상 책임 판결 이후 경제·역사 전쟁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만행을 왜곡하고 반성케녕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며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민족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 진도읍 시가지 ‘감성조명’ 눈길

진도군이 진도읍 시가지 일대에 감성조명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예산 1억여원을 투입, 진도읍 주요 도로 조명을 LED로 설치했다. 시가지를 화려한 조명으로 새롭게 연출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야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취지다.

이번에 설치된 감성조명은 우리나라 근

대 6대 화가인 의재 허백련 선생의 생가 주변에 의재 선생의 산수화와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가 거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감성용 열주등 7개소, 스트링 라이트(감성조명) 3개 등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감성조명 설치로 어두웠던 거리가 밝아져 야간 시야 확보는 물론 걷고 싶은 야간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태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무안 꿈나무 건강터 만들기 운영

무안군은 최근 지역아동센터 28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꿈나무 건강터 만들기 교실’을 운영했다.

‘꿈나무 건강터 만들기 교실’은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

력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 영암 청소년 정책학교 운영

영암군 청소년 자치기구는 최근 고려대학교 문화대학생들과 연계한 정책학교를 운영했다.

정책학교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이주여

성 인권으로 불거진 국제결혼의 문제점 등 굵직한 사안들을 의제로 다뤘다.

류정용 자치기구 단장은 “사회 이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값진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식 기자



### 강진 청소년 흡연예방·절주 교육

강진군보건소는 최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힐링 푸드아트’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접목해 학습대상자 중심의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태영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 스스로 흡연과 음주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